

Dail



새 생명의 쌀

조용근

유석열

김영동

다일공동체

1000



1988년 청량리역광장에서 시작한 밥의 나눔이 지난 5월2일 1,0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년의 시간동안 한 마음 한 뜻으로 밥의 길을 함께 걸어준 다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밥퍼를 통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었던 5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박상원 홍보대사와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 비전트립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탄자니아의 빈민촌, 쿤두치 채석장의 아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배움의 권리도 누리지 못 한 채, 하루 1달러에도 미치지 못 하는 돈을 벌고자 12시간 꼬박 돌을 깨며 살아갑니다.

조막만한 손으로 종일 망치질을 해대는 아이들의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아리던지요. 이에 다일공동체에서는 탄자니아 내에서도 절대적 빈곤층이라 불리는 쿤두치 채석장 아이들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교육을 위한 아프리카 다일 비전센터(다일 호프스쿨)를 건립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립기금 부족으로 부지를 마련한 것 외에 그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탄자니아의 숙원사업인 비전센터 건립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활한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은 탄자니아 아이들이 비전센터를 통해 더 큰 꿈을 꾸는 아이들로,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감사합니다! 살롬!

작은 형제, *취* 믿든 울림

CONTENTS

02

어버이날 행사

04

7년째 나눔 실천,
후원학생 이야기

06

2000인분 비빔밥 후원,
전주 갑기회관

08

나눔은 실천! 천사기업
창덕법무사

09

믿음으로 행하는
천사교회 생명샘교회

10

빵퍼로 전하는 사랑,
다일공동체 리일 간사 이야기

12

현장 이야기

27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28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2

신규후원

34

후원안내

C.O.V.E.R.S.T.O.R.Y



빵퍼 기적의 1000만 그릇 돌파

지난 5월 2일 오병이어 행사 당시
천만 그릇돌파 기념 대형 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은진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7년 7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5월 8일 날개를 단 트럭 위, 특별한 연주회



다일공동체 심포니송과 함께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들 위한 연주회 개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 본부에서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단원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문화형성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21C형 한국 대표 오케스트라인 '심포니 송'에서 무의탁 노인, 노숙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준비한 연주회였습니다.

노루 홀딩스 한영재 회장의 후원으로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번 연주회는 함신의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미국 예일대 음악대학 지휘과 교수이자 심포니송 예술감독인 함신의 감독이 이끄는 심포니송 오케스트라는 「The Wing - 날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워바디 트럭에서 펼쳐지는 고품격 클래식 연주회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 다니며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돕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함신의 예술감독



워바디 트럭 위 연주모습

이날 함신의 감독은 「The Wing - 날개프로젝트」 연주회를 통해 “오늘의 주요 반찬은 음악이고 조금 후 드실 음식은 보조반찬이다”라며 밥퍼 어르신들께 음악을 함께 즐겨주실 것을 부탁하며 경기병서곡, 왕별의비행, 윌리엄텔서곡 등 어르신들도 친숙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쾌하고 활기찬 곡 위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 후, 다일공동체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적은 엽서와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드린 엽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감사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눈시울을 붉혀가며 한 자 한 자 눈을 떼지 못하고 엽서를 읽어 내려가시던 어르신들. 그 모습에 저희 또한 어찌나 가슴이 시렸는지 모릅니다.

한촌설령탕에서 후원한 설령탕과 함께 기업, 단체, 개인이 십시일반 마련한 후원금으로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점심을 대접,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에는 쌀, 라면 등 식료품을 나눠드리며 풍성한 어버이날을 맞았던 5월 8일.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었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포근한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DaIL**



- ① 공연 후 밥퍼 봉사중인 함신의 예술감독
- ② 엽서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진 어르신
- ③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립니다.
어제나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은길
가도드릴게요
잠시나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가
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
니다.
췌기끔 외롭고 쓸쓸하실 때
편지 보고 위안 얻으셨음 해요!
사랑하긴 존경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만복무궁
하세요!~
-다일 DaIL

To. 어르신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 읍내원에
봉사왔었던 광남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이
겠지요, 제가 비록 드릴 수 있는 게
이 엽서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
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

김수용 후원회원 인터뷰

초등학교 때부터 7년 간
매월 밥퍼에
정기적 나눔을 실천해주고 있는
김수용 후원회원 인터뷰



김수용 후원회원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용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위로 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쿨한 성격으로 친구들과는 큰 트러블 없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이고요. 현재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있고, 관련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함께 연극이나 영화 관람도 하러 다니고요.

Q. 밥퍼에 꾸준히 봉사중인데, 언제 어떤 계기로 봉사를 시작하게 됐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처음 밥퍼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아빠 따라 자연스럽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전 볼이나 칼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생강 껍질을 벗기거나 채소를 다듬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당시 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밥퍼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절 친 손녀딸처럼 예뻐해 주시며 기특하다는 칭찬을 자주 해주셨어요. 이런 칭찬을 받으니 더욱 신이나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후에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밥퍼 봉사 시기가 되면 제가 자진해서 아빠를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봉사활동 중 아버지와 함께

Q. 밥퍼 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전 처음 봉사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쌀이 없어 밥을 챙겨 드시지 못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밥을 드시러 오신 어르신들의 끝이 없어 보이는 줄, 몇 백 여명의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던 그 첫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면 늘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봉사 지으신 쌀을 보여 주며 “쌀 안 가져 가냐?”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아버지는 “지난 번 보내주신 쌀도 아직 많아요”라고 답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밥퍼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저희에게는 늘 남는 그 쌀이 없으신 거잖아요. 첫 날,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밥을 퍼드리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에게 남는다고 모두에게나 남는 건 아니구나...’ 이같은 깨달음을 얻은 첫 봉사 날이 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때 밥퍼 봉사 후 점심식사 중

Q. 7년 동안 밥퍼에 기부도 하고 있어요. 용돈으로도 부족할 나이에 오랜 기간 기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밥퍼 봉사를 하다보면 밥퍼에 찾아와 홀로 외롭게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밥 한 끼를 위해 땀방울이 내리찍는 더위 속에서 뺨을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폐지 가득 담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오시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늘 먹먹했습니다. 반면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겨울에 연탄이나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한 칸이 따뜻해졌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기 보단 제 마음이 그렇게 향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움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요. 그냥 그 도움을 제가 직접 드렸을 때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기에 적은 돈이지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봉사활동이나 정기적 기부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나눔 실천의 롤 모델이 있나요?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요.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의 공통점은 손이 매우 크다든 것인데요. 그래서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또는 주위에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늘 풍족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식재료를 나누어 드리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게 받는 사람보다 주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늘 더 행복해보이더라고요. 풍성히 나눌수록 마음이 더 풍성해진다며 나눔의 기쁨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제 롤 모델입니다. 지금은 학생이기에 나눔에 한계를 좀 느끼는데요, 어른이 되면 저도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지금보다 더 풍성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다일공동체 후원자로서 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나눔이나 기부문화가 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유를 여쭙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민족 자체는 온순하고 정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다보니 ‘굶주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기 것을 지켜내야만 했던 슬픈 역사’가 몇몇 이유 중 하나일것이다 이야기해주셨어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눔, 기부에 대한 교육도 잘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에 기부 문화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나눔 정신이 나라의 복지제도보다 더 큰 위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꾸준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1인 1기부 문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다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기도합니다. **dail**

전주 갑기회관
김정옥 사장님
인터뷰

지난 5월 2일,
밥퍼 1000만 그릇 돌파 기념
오병이어 행사 당시,
2000인 분의 대형 비빔밥을
손수 준비해주신
전주 갑기회관
김정옥 사장님 인터뷰



Q. 전주 갑기회관은 어떤 식당인가요?

전주비빔밥 전문 식당입니다. 전주에는 전주비빔밥 전문 대표 식당이 6군데 있는데요. 대부분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30년 즈음 된 식당으로 여섯 식당 중 가장 후발주자로 업계에 뛰어들었죠. 그렇지만 비빔밥 나눔만큼은 가장 앞장서 하고 있습니다.

Q. 다일공동체와는 어떤 인연으로 대형 비빔밥 준비를 돕게 되셨나요?

2014년 다일공동체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밥퍼 700만 그릇 돌파를 기념하여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나누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비빔밥 지원이 가능한지 연락이였죠.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다일공동체 이사장님으로 계신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주 비빔밥을 사랑하고 알리는 사람으로서 밥으로 사랑을 나누는 목사님을 언제나 존경하고 있었기에 요청이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이번 1000만 그릇 때에도 작은 손길을 보태게 되었고요.



지난 5월 2일 오병이어 행사 당시, 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Q. 비빔밥 2000인분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재료 양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힘들었나요?

아무래도 음식이다 보니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하루 이틀 전, 음식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일손도 많지 않은데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재료 준비를 모두 마쳐야했기에 그 부분이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1000인분은 몇 차례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2000인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들어가는 재료량을 맞추는 것부터 시간 내 조리하는 것, 행사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한 재료를 옮기고 트럭으로 또 4시간 운반하고 도착 후 세팅하기까지 생각해보면 뭐 하나 쉬운 일은 없었던 듯 해요.

Q. 비빔밥을 평소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나누고 계시다 들었는데요?

네. 1000인 분에 달하는 대형 비빔밥 나눔은 20여년전부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비빔밥 나눔도 매년 5월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3일 지역 어르신 350여 분에게 전주비빔밥을 대접해드렸는데 한 분 한 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5월 13일, 대접받은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Q. 나눔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어렸을 때 양곡창고를 운영하던 부모님께서서는 배고픈 이들이 있으면 배고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밥을 지어 나누어주었습니다. 밥을 드시는데 모두들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린 시절,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 그런지 전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죠.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운 것 같아요.

Q. 나눔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눔이란 '마음 가는대로 퍼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기 것을 하나 하나 챙기기 시작하면 여유가 있더라도 나누지 못 하는 것이 나눔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가진 것에 너무 연연하기 보다는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고, 마음이 생겼을 때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이같은 기쁨을 다른 이들도 함께 맛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나눔이 아닌 마음이 가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나눔에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DAJL**



한창 점심식사 준비중인 주방 안



가게에 놓여있는 오병이어 행사 기념 서적

전주 갑기회관 외경



**다일공동체
천사기업을 소개합니다!**

**창덕법무사
김광숙 법무사님**

천사기업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 기업입니다.

창덕법무사는 2000년에 개업한 17년된 법무사 사무소로 등기를 주요 업무로 하며 그 외 민사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론만 없을 뿐 다른 업무는 변호사와 동일하며, 비용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할 때보다 법무사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다일공동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다일공동체 초창기 시절,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김연수 대표님을 만났어요. 최일도 목사님 아들과 저희 아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든요. 마침 또 제가 살던 아파트에 최 목사님 가족이 살고 있기도 해서 목사님 가족과 왕래를 하면서 다일공동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기업 현판 들고 있는 김광숙 대표님

Q. 대표님이 생각하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나눔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일을 사랑하는 이유도 다일의 실천정신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다일은 일단 실천하고 보잖아요. 그래야 변화도 나타나고요. 참 그게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데 오만이라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위 사람들을 보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실천이 곧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나눔 활동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나눔 활동을 하기 전에는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것을 지키기 위한 욕심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일의 국내외 사업장을 방문,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과 직접 마주보며 함께 나누다보면 크고 작은 욕심이 어느새 모두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뭔가 나눔 전보단 후의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DAIL**

실천하는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창덕법무사.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눌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김광숙 대표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천사기업이 되어주신 창덕법무사 김광숙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공동체
천사교회를 소개합니다!**

**생명샘교회
정석우 목사님**

천사교회는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말씀을 직접 실천하며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 생명샘 교회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17년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생명샘 교회 정석우 담임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생명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온전히 하나님 한분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언제나 부단히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전도 대상자 위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신자가 아닌 초신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죠. 그래서 설교 내용이든 전달 방식이든 정통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초신자를 위한 생명샘 교회만의 배려죠. 이 외 전도를 할 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전도를 하는데요. 이 역시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생명샘 교회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 과거 수능 영어강사로 일을 하였었는데 이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권투나 수영처럼 운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재능기부로 권투나 수영을 가르쳐주며 전도를 하고 있고요.



생명샘교회 정석우 목사님(가운데)과 다일공동체 교회협력실 최홍 국장님(우측)

Q. 생명샘교회는 어떤 계기로 천사교회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천으로 옮기기 힘들어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전 나중이 아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올해, 저희는 그 길로 다일공동체 밥퍼를 방문, 밥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사교회 제안도 받게 되었고요. 제안을 받고 생각해보니 요즘 외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한 끼(8,000원)만 집 밥으로 대체해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끼의 외식비용을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후원 금액을 다달이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천사교회로서 다일공동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Q. 생명샘 교회의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반드시 깨어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와 목사가 서로를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어떤 형상을 보고 체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한 영혼 한 영혼 진정으로 구령할 수 있는 교회가 생명샘 교회가 되길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일**

목사님을 비롯해 온 교우들이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생명샘 교회! 크지 않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해왔다고 생각한 그 순간, 바로 밥퍼 봉사를 시작하고 매달 10만원씩 나눔과 섬김에 동참하고 있는 생명샘 교회의 실천적 나눔은 인터뷰 내내 감동이 되었습니다. 생명샘 교회처럼 단순히 아닌데만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를 실천한다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천사교회가 되어주시는 생명샘 교회 그리고 기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석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빵퍼로 전하는 사랑,”

내가 본 희망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베트남 다일공동체에서 빵퍼 사역을 준비중인
다일공동체 리일 간사 이야기



캄보디아에서 빵퍼 사역 당시 리일간사

Q1. 리일 간사님은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다일공동체 해외 분원에서 빵을 만들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는 4,5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베트남 다일공동체에서 빵퍼 사역을 준비중입니다. 다일공동체는 10개국 17분원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과 빵을 나누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몇몇 이유로 빵을 만들어 나누는 나눔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빵퍼 사역을 위한 첫 멤버로서 베트남다일공동체 호치민시 띠엡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Q2. 나누는 삶,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5살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11살 되던 해 중국 다일공동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국 다일공동체는 밀강(密江)이라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탈북민을 자주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보일러실에서 고아원 동생이랑 함께 감자를 구워먹는데 어린 아이를 안은 여자 한 분이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탈북민이었죠. 다짜고짜 배가 너무 고프다며 저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어린 시절 사흘이고 나흘이고 밥을 정말 많이 굶어봐서 극심한 배고픔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밥 이랑 김치를 가져다 드렸었어요. 어찌나 잘 드시던지, 드신 후 연신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 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먹을 것이 정말 필요한, 절실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삶을 살면 참 부듯하겠단' 생각이요.



중국 다일공동체에서 생활할 당시 리일간사



중국 다일공동에서 생활할 당시, 친구들과 함께

Q3. 그럼 빵을 나누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한거예요?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저는 두만강기술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만강기술학교에서는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빵을 굽는데요. 당시, 이렇게 구운 빵 1800-2000개를 매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 그 이야기가 확 끌렸어요. 어린 시절, 어려운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삶을 꿈꾸었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제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란 확신이 들어 두만강기술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가진 기술로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기쁨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님의 소개로 다일공동체의 밥 나눔, 빵 나눔 사역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일공동체에서의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4. 4.5년이면 꽤 오랜 기간인데, 빵을 나누면서 부딪혔던 순간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 씨엠티에서 처음 빵을 만들어 나누는 일을 시작했고, 두 번째 사역지가 네팔이었는데요. 전 특히 네팔에서 빵을 만들어 나누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있던 지역은 네팔 포카라라고 음식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 아이들은 대부분 빵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맨 처음 만들어준 빵이 소보로였는데 소보로를 처음 맛보던 아이들의 표정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던지요.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 또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빵을 만들고, 나누던 매 순간순간이 부딪혔지만 특히 네팔에서의 나눔이 가장 보람되고 가슴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리일 간사가 만든 빵을 먹고 있는 네팔 아이들

Q5. 다일공동체 스텝으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어린 시절, 오랜 떠돌이 생활 끝에 만난 다일공동체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어린 관심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었나갈 때조차 절 향한 시선은 늘 따뜻하고 포근했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파 했고, 꿈이란 것을 미래란 것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가 절 따스하게 품어 삶에 희망을 보여주었듯 저도 다일공동체 스텝으로서 빵을 통해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일**

캄보디아에서 빵퍼 사역 당시, 빵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리일 간사(좌측)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꾸살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더 큰 세상으로의 한 걸음

네팔은 4월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4월에 졸업식과 입학식을 합니다. 네다일 호프스쿨 역시 졸업식과 입학식을 했습니다. 호프스쿨에서 가장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꾸마리 제빵은 이번에 14살의 나이로 호프스쿨 4학년을 졸업하고 공립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 세르파 부족이 많이 사는 것처럼 제빵 부족은 정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제빵 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정글의 삶을 청산하고 사회로 나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글을 벗어났을 때 방 한 칸 얻을 돈을 구하기 힘든 것이 제빵 부족의 현실입니다.

꾸마리의 가정 또한 카트만두 살아가 어려워 다시 정글로 돌아가려는 때에 감사하게도 다일 비전트립 때 네팔을 방문하셨던 황혜정 님의 후원으로 매월 방세를 내며 카트만두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마리는 4년 전부터 다일 비전센터에서 밥을 먹고 있으며 호프스쿨에는 2년 전에 입학 하였습니다. 처음 꾸마리는 호프스쿨에 제일 나중에 들어온 데다 문명과의 단절로 친구들과 언어 소통도 잘 되지 않아 혼자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을 보내며 외로운 학교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프스쿨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은 네팔어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언어 능력이 날로 향상되어 또래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꾸마리의 장래희망은 선생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별거숭이 같던 자신이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니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며 가르치고 싶다고 합니다. 꾸마리의 꿈을 응원해주세요길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졸업식





호프스쿨 졸업식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새 교복과 새 학용품을 나누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교복, 노트, 연필, 연필깎이 등을 나누고,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교복, 노트, 펜, 잉크, 수학 교구세트 등을 나누었습니다.

네팔의 학교에서는 한 과목당 노트 2권씩 준비하는 것이 필수일 정도로 필기하는 양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학년당 14과목 정도 되니 필요한 노트만도 30권에 가깝습니다. 학년 초에는 노트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학교가 많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 시기에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새 학년, 물품 나눔을 통해 이 같은 이유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 학년, 새 물품을 받아 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동결연 후원자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설렘 가득한 새 학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DAJ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결연아동에게 새학기 물품 지급중인 모습



미국 AMERIC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축복의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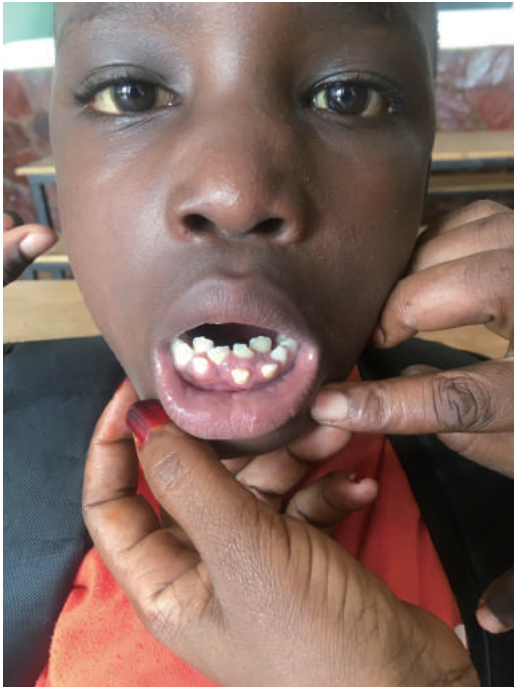
다일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된 한국처럼 여기 조지아도 이제 아침부터 햇살이 따가워지는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후원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미주다일공동체는 다일공동체의 해외 사역지 7개국(중국,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의 귀한 사역들을 돕고자하는 미국 내 후원자 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 해외 사역지로 잘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애쓰고 있습니다.



라드하키 모하메디와 엄마

현재 미주 일대일 아동결연자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5개 분원을 대상으로 총 286명입니다. 처음 미국에서 아동결연을 시작할 때는 미국과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역지의 아동들이라 년 1,2회 정도의 아동발달보고서나 성탄카드로만 아동들과 교류하기에 아동들과의 관계성이 잘 지속될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한 우려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미주다일의 아동결연 후원자 분들은 단순히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결연아동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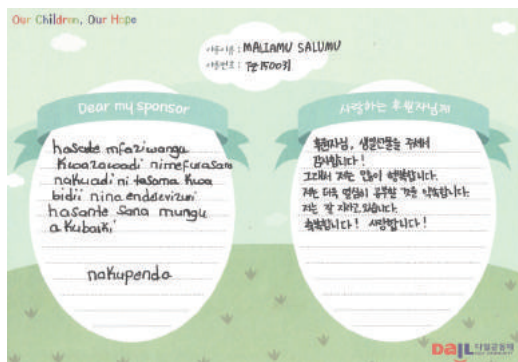
라드하키 모하메디 치아사진



라드하키 모하메디 치아 치료 후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연아동의 생일에 선물금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정성이 담긴 손 편지를 적어 보내주시기도 하는 후원자 분들. 탄자니아 아동과 새로 결연을 맺은 후원자 박정옥님은 어려운 형편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서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 라드하키 모아메디 (RADHAKI MOHAMED)라는 남자 어린이의 사연을 들으시고 아이 걱정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달라며 수차례 전화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주시는데 그 진심어린 말에 미주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요. 이분 아니라 박정옥님은 아래 치아가 두 줄로 잘라 하루속히 치료를 받아야하는 라드하키 모아메디의 형편을 아시고 최근 아이의 치과 치료비를 직접 모금하여 미주다일공동체에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 미주다일공동체의 오랜 벗님이신 윤석삼님도 본인의 결연아동 생일 선물금을 전해 달라면서 저희 오피스까지 선물금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한 아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길 후원해주시는 미주다일공동체 후원자님들. 앞으로도 미주다일공동체가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윤석삼 후원자님 결연아동 감사편지

미주다일공동체 후원회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결연 아동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후원자 분들은 미주다일공동체 본부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사랑을 전해주시길 후원자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 천하보다 귀한 한 아이의 영혼을 품어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dajl**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윤석삼후원자님 결연아동 생일선물 전달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LOTTERIA희망 릴레이! 365일 잔칫날~

베트남의 대표적인 한국 기업, LOTTERIA 덕분에 요즘 밥퍼는 잔칫날 입니다. 맛있는 햄버거와 우유 그리고 컵과 바구니를 후원해 주신 LOTTERIA의 나눔은 지금의 밥퍼 외 빈흥화지역에까지 확장 되어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요즘 하루하루 풍성한 나눔을 실천중입니다.

이뿐 아니라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거저 받은 후원물품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 수 있는 '거저축제'를 진행함으로써 밥퍼를 찾는 분들 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나눔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이웃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LOTTERIA 기업에 온 마음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국제어린이날 행사"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 시절, 생일만큼이나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만큼은 아이들이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선물도 받고,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도 놀러 가 추억을 만드는 등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롯데리아에서 후원해준 햄버거와 음료

베트남은 지정된 어린이날이 없는 관계로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국제어린이날을 기념하여 6월 1일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약 150여명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어린이날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 BETHEL VINA 이인혁 법인장님께서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책가방 100개를 마련해주셨고, 매년 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후원해주고 있는 'ARDITO' 음악회에서는 멋진 공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음악회를 총괄하시는 안혜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까지 챙겨와 주셨는데 이처럼 풍성한 어린이날을 만들어주신 후원자 분들에게 어찌나 감사한 하루였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날이지만 어른들도 한마음이 되어 모두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어린이날답게 보낼 수 있도록 잔칫날을 만들어 주신 BETHEL VINA 이인혁 법인장님과 'ARDITO' 음악회 안혜선 선생님과 단원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여러 후원자님들에게 역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값진 하루를 선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늘 베트남 다일공동체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 어지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DAJU**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어린이날 ARDITO연주회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토론토중양장로교회에서 후원받은 옷을 입은 아이들

우간다 아이들의 후원천사가 되어주실래요?

우간다다일공동체는 2015년 11월에 9명의 아이들에게 일대일 아동결연을 맺어준 것을 시작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현재, 15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후원아동들에게는 학비 전액과 식량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키티코 정부초등학교 전교생 320명과 올해 4월 첫 주부터 시작한 키고프린즈 초등학교 전교생 250명에게 매일 빵과 우유를 나누는 빵퍼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동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 천사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비를 못 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빈민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연된 아이들을 너무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까만 눈망울들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 감장 천사들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실 후원 천사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토론토중양장로교회가 최고야!

캐나다 토론토중양장로교회(담임목사 유충식)에서 우간다다일공동체에 300여벌의 새 옷(티셔츠, 상의추리닝, 어린이 내의 등)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여 오랜만에 학교에 출석한 아이들은 새 옷을 받아 들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대일 아동결연에 동참해 주신 50여 분의 토론토중양교회, 토론토우리교회, 토론토동신교회 후원자님들에게 역시 감사인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간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DAJL**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결연아동 최초 식량 지급하는 날

2017년 5월 스폰서데이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 ① 연합행사 중 단체사진
- ② 복산 등산 중 단체사진
- ③ 연합행사 중 만두 빚는 모습

훈춘시 춘량 동사무소와 적십자의날 연합 행사 개최

다일어린이집은 작년부터 적십자의 날을 기념하여 훈춘시 춘량 동사무소와 연합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일어린이집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다일가족이 춘량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춘량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응급교육, 심리상담, 만두 만들기, 각종 오락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후에는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포옹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랑하고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고백을 주고받는데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다 뭉클했습니다.

내년에도 춘량 동사무소와 함께 따뜻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노동절 복산 등반

노동절을 맞아 학교도 휴교를 하여 중다일 가족 모두 훈춘의 복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에 들뜬 아이들이 어찌나 맛을 부리던지, 한 아이는 등산을 가는데 치마까지 차려입고 나와 그 모습에 모두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흠뻑 땀 흘리며 함께 살며 어려웠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까지도 내보냈던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DAIL**

☎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중고등학교 건립을 기도하며

시엠립 프놈끄라움, 쯡크니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건립이 시급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각종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청소년, 보충수업을 받지 못해 나이가 차도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 반나절 수업으로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75%가 넘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 종일반 정규학교를 건립, 운영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망치가 아닌 학교에서 책을 들고,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음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 캄보디아를 더욱 새롭게 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하며 고대합니다.

지난 5월 8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주관하고 한국 문인선교회에서 후원한 제4회 글짓기 대회가 시엠립, 쯡크니어 지역 8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대회처럼 참가자들은 예쁘고 정감 넘치는 글로 저마다의 글솜씨를 뽐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중고등학교에도 잘 안착되길 희망하며 캄보디아다일공동체와 함께 중고등학교 건립 운영에 도움 주실 분을 기도로 기다립니다.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꿈을 이루는 장학관, 꿈퍼를 향해

시엠립 외곽 도시빈민 마을에 자리한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밥퍼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이 학생들이 대학공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내에 꿈을 이루는 장학관인 꿈퍼를 세우려 합니다.

얼마 전, 장학관에 앞서 이들을 위한 천막 도서관이 먼저 생겼습니다.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님과 미성년 관찰보호 대상자 20여명이 세워준 천막 도서관. 천종호 판사님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모든 재료를 가져와 도서관은 정성스럽게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할 학생들을 생각하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도서관이 세워지고 하니 꿈퍼 장학관도 속히 건립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50여명이 꿈골 장학관 건립을 위해서는 75,000달러가 필요합니다. 가난으로 학생들이 꿈을 접는 일은 없도록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해주실 손길을 기다립니다. **DAIL**



① 천막도서관 완공 모습

② 글짓기 대회 후 상품들고 단체사진



공사 후 소피아네 집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흙집에 사는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탄자니아는 3월에서 5월까지가 대우기입니다. 이번 5월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쿤두치 채석장 집을 가운데 가장 취약한 흙집에 사는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번 소식지를 통해 소개한 소피아네 집과 세실리아, 파올로 남매의 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소식지를 통해 에이즈에 걸린 소피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쓰러져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이 흙집을 구입하여 5남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스텝들은 흙집을 구입하고, 구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도 끄덕 없는 벽돌집으로 튼튼하게 새로 지어주기 위해 열심히 솥을 팔아 비용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최근 소피아 가정에 귀한 후원 천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부분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후원 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기가 지난 직후, 붕괴 직전의 소피아네 흙집을 수리하기 위해 이브라, 아부, 소피아 큰오빠와 제가 두 팔을 걷고 집수리에 들어갔고, 4일에 걸친 집수리 끝에 집의 뼈대와 벽면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수리 후 환하게 웃는 소피아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흙집을 구입하여 벽돌집으로 공사하면 얼마나 더 행복해할까'란 생각에 기쁨의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공사전 세실리아와 파올로 가족



공사후 집앞에서 세실리아와 파울로

호프클래스 1기생 세실리아와 3기생 파울로 남매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자녀 둘과 세실리아, 파울로, 막내까지 모두 5명의 아이들과 전기도 물도 없는 흙집,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해맑은 웃음을 짓는 쿤두치 마을의 해피바이러스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실리아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함께 가달라고 하여 가 보니 이번 비로 인해 흙집의 한 면이 쓸려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인건비를 아끼고자 이브라, 아부와 세실리아까지 달라붙어 저희는 3일간 집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벽면에 새 흙을 바르고 그 위에 시멘트까지 덧입혔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집을 바라보며 연신 고맙다고 “아싼테! 아싼테!” 외치는 세실리아와 파울로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번 대우기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려 흙집에 사는 가정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흙집 벽면에 구멍이 뚫리거나 벽이 허물어진 피해 가정은 그대로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이러한 집들을 추후 보수해주길 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일**

탄자니아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① 소피아네 집 공사 사진

② 세실리아와 파울로네 집 공사 사진

필리핀

PHILLIPHINES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아이들의 꿈터, 까만씨 다일공동체

아무런 정보도 안내도 없이 세부의 가장 가난한 이웃에게 나뭇과 섬김을 실천하고자 찾아간 까만씨 마을. 무턱대고 찾아간 그 곳에서 부족 추장이자 목사인 에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저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비전을 나누며 서로 간 신뢰를 쌓아 두 달 여만에 다일 공동체와 Datu mapaub-sanon 부족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은 원주민 부족 연합체로부터 명예 부족원 및 평화 대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Man of Assistance” 라는 뜻의 “Kali Tawong Banwaon Matinabangon” 제 아내는 “Woman of Understanding” 라는 뜻의 “Bae Masinabtanon”이라는 부족 이름도 받게 되어 지극히 폐쇄적인 원주민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부족이든 방문해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까만씨 다일공동체 설립 후 교회 한 구석에 있던 드럼통 오븐으로 빵퍼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빵을 먹는 아이들이 30명 남짓이었는데 두 달 여만인 지금은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빵 반죽 안에 칼슘과 비타민 파우더를 넣어 만든 영양빵을 영양가득 음료와 함께 나누어 주니 맛도 영양도 꽤나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이뿐 아니라 빵퍼 후, 더러운 물로 인해 생긴 피부병을 완화시켜주고자 아이들에게 정성껏 연고도 발라주는데 이런 이유로 아이들은 하루 종일 까만씨 다일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하루빨리 이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어 아이들 교육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수상빈민촌에 위치하다 보니 전기와 수도부터 연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밀물 썰물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자재 또한 열기설기 엮인 길들을 통해 운반해야해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는 부족원들이 있어 오늘도 불끈 힘을 내봅니다.



- ① Datu mapaubsanon 부족과 파트너십 체결 중인 최일도 이사장
- ② 피부병 걸린 아이에게 연고 발라주는 모습

현재 저희는 에드가 목사님이 홀로 힘겹게 지켜오던 까만씨 교회를 확장하여 아이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나눌 밥퍼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꿈터가 될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까만씨 다일공동체를 통해 까만씨의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아이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dajl**



빵을 받고 신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븐 : 까만씨 빵퍼의 드럼통 오븐을 대신할 오븐이 필요합니다. 오븐이 마련되면 원주민 자활교육에도 귀히 사용될 것입니다.

책 : 매일 찾아오는 아이들이 빵과 함께 먹게 될 마음의 양식, 책이 필요합니다.

연고와 비타민 : 더러운 물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연고와 비타민이 절실합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까만씨 다일공동체 단체사진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변창재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드래요~ 밥퍼 효도 관광

5월 12일 오전 6시부터 밥퍼는 효도관광을 떠나는 어르신들로 인해 복잡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 아침 7시, 최종 명단 확인 후 버스는 드디어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행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되었으나 감사하게도 모두 함께 무사히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정선 '아라리촌'입니다. 한국 전통 민속 마을로 곳곳에는 양반, 노비들의 기념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고즈넉한 분위기에 어르신들은 흠뻑 취하신 듯 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정선 방문을 환영하는 판소리 공연을 들으시고, 아리랑 박물관으로 이동하여서는 전국의 아리랑도 원 없이 들으셨던 어르신들은 오랜만의 관광에 무척 즐거워하셨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정선에서 제일 큰 정선시장에 모시고 가 점심 진지를 드렸습니다. 운 좋게도 때마침 강원도에서 가장 큰 장으로도 유명한 정선 오일장이 열린 날이라 어르신들은 정선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콧등치기 국수, 곤드레 밥으로 점심을 드신 뒤 시장 구경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볼거리들이 넘쳐났던 시장.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추억이 되살아나시는지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효도 관광의 마지막 코스, 화암동굴 옆 천포금광촌을 향했습니다.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캐던 광산인데 무더운 여름 시원한 동굴 속 여행이 어르신들은 꽤 만족스러운 듯 하였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움직여 피곤하셨는지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행복한 단잠에 빠지신 어르신들. 무사히 밥퍼 도착 후,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떠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종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느라 쌓였던 피곤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번 효도관광을 후원해 주신 그룹엔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복한 효도 관광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라리촌 앞에서 효도관광 단체사진

밥퍼에 울러 퍼진 아름다운 함창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재직하시는 서혜연 교수님께서 제자 9명과 함께 밥퍼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무의탁 노인, 노숙인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서혜연 교수님께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꿈의 찬가'라는 주제로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성악도 가르치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박물관에서 토요일악회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혜연 교수님이 밥퍼를 찾은 지난 0일, 밥퍼 앞마당에 멋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고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성악가 학생들의 노래에 박수로 리듬을 맞추시며 공연을 즐기셨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쏟아진 앵콜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르신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래를 불러주신 서혜연 교수님과 학생들.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초코파이와 요거트까지 준비해서 와 주신 서혜연 교수님! 그 따뜻한 마음 어르신들께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밥퍼에 또 오시겠다는 그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jl**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함께하는 음악회 공연중인 서울대 학생들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DAIL ANGEL'S HOSPITAL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마지막 가시는 길

노숙인 입소시설로 연고자가 없고 몸을 스스로 가누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죽음을 기다리는 암환자를 돌보고 있는 다일작은천국은 노숙인 입소시설 중 유일하게 입소 어려신들의 외로운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장례식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점승(가명) 할아버님 장례 모습

위 사진은 지난 2월 양평침터의 의뢰로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하신 함점승(가명)님의 장례 당시 사진입니다. 폐암 투병 중 온몸으로 암이 전이되어 항암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치료를 거부하였고, 이후 병이 악화 돼 결국 지난 12일 동부시립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전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저희는 함점승님 상태를 알렸고, 이에 가족들이 방문하여 천국환송과 화장 진행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가족들을 찾아 함점승님의 죽음을 함께 추모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① ② 최성일(가명) 할아버님 장례 모습

위 사진은 구세군센터 의뢰로 2월에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하셨던 최성일(가명)님의 장례 모습입니다. 최성일님은 폐암으로 기침이 심한 환자였습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심한데다 함께 생활하는 입소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자 최성일님은 지난 4월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 하였습니다. 2,3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열심히 암과 사투를 벌였지만 다른 장기들에게까지 암이 전이 되면서 결국 지난 25일 임종하신 최성일님.

최성일님은 여동생 외 다른 가족들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는데 소천 소식에 많은 친인척분들이 장례식장을 방문, 함께 최성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드렸습니다. 홀로 암과 사투하며 힘든 생을 마감하신 최성일님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렸던 작은천국. 작은천국은 앞으로도 입소 어려신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dail**

작은천국 02-2213-8004

포퓰다세

한 생명을 품다

포퓰다세 캠페인은
다일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1:1 해외아동결연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에 사는 조이스예요.

부모님은 에이즈로 돌아가셔서 고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꿈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코미디언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거든요.

하지만 당장 먹을 음식과 밀린 학비를 해결해야 해서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배으 라이

캄보디아 / 10살



벌나데트 루이즈

필리핀 / 11살



사리무 아미시

탄자니아 / 6살



니루 바하드루 따망

네팔 / 8살

감사

김연수 시인

아

ㅈ감사

ㅈ이중사전에

ㄴ있어누어있는

을글ㅈ말말들을

도쌓 도쌓고 쌓고

ㅈㅈ을 ㅈ쌓아 올려서

ㅈㅈ을 ㅈㅈ말말 탑을 하나

ㅈㅈ을 ㅈ쌓 ㅈㅈ을 튼실하게 쌓아 올리면

을공ㅈ을 ㅈ이대ㅈㅈ을 그 탑 꼭대기에 올려놓을

ㅈㅈ을 ㅈㅈ을 ㅈㅈ을 맨 마지막의 날말은 무얼까

ㅈㅈ을 ㅈㅈ을 ㅈㅈ을 도 묻고 물으면 남는 날말은 감사

ㅈㅈ을 ㅈㅈ을 ㅈㅈ을 문장 ㅈㅈ을 깨달음의 창문 살짜기 열어 보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 am . a . happy . volunteer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에서 밥퍼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일일배식비도 후원해주셨던 jt친애저축은행 분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역시 맡은 역할도 계산기와 같이 정확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은행 업무 특성상 평일 날 봉사가 쉽지 않았을텐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인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에서 봉사를 왔습니다. 사람인은 기업과 구직자의 채용을 연결해주는 기관으로써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업입니다. 밥퍼에 봉사 오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일일 배식비까지 준비해주셨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주신 사람인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사람인이 최고야!



성신여고

여고생들이라 처음에는 주방 일을 하는데 다치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어느새 적응완료! 밥술 세척도 척척, 음식물 쓰레기까지 마지막 정리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곧 있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온다는데 행복한 수학여행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세요!

작은천국 LITTLE HEAVEN



석관고 이과반팀

2016년 석관고등학교 서여민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반 제자들과 함께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매달 학생들과 따뜻한 봉사를 실천해주셨던 선생님께서 1년이 지난 2017년 새로운 반 제자들과 함께 이곳 다일작은천국을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교육을 실현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진정한 배움을 얻고 가는 것 같아 보기 좋았고, 저희 또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과 훌륭한 제자들의 아름다운 인생 비행을 응원하며 항상 저희 다일작은천국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배화여대 How 동아리

매년 성실하게 봉사를 왔던 배화여대 봉사자가 이제는 당당히 한 동아리의 대표가 되어 신입생들을 데리고 봉사를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모였다고 얘기하는 이 학생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규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하는 내내 집중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배화여대 How팀! 이번 2017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RCY 동아리

2017년 봄, 서울시립대 RCY팀이 풋풋한 신입생들과 함께 저희 다일작은천국을 다시 방문해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매주 봉사를 와 따뜻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이 벌써 어엿한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데리고 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봉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서울시립대 RCY 팀을 힘차게 응원하며 2017년도에도 따뜻한 나눔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VIETNAM



호치민 여성 자원봉사단

나눔과 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 만든 '호치민 여성 자원봉사단'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호치민 여성 자원봉사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밥퍼에서 식사하시는 한분 한분에게 눈을 맞추고 밥을 대접해 드림으로써 사랑과 온정을 전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신 호치민 여성 자원봉사단의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THANH CONG

매년 밥퍼를 방문해 주시고, 맛있는 밥을 나누고 계시는 이랜드 노조위원회 분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의료를 배가고픈 분들에게는 양식을 고루고루 나눠 베풀어주시는 THANH CONG기업이 베트남에서 더욱 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중국 CHINA



훈춘시 성심차대

훈춘시 70명의 택시기사 모임인 성심차대에서 중국다일공동체를 방문, 봉사해주셨습니다. 6월 1일 중국 아동절을 기념하여 아동들에게 우산과 맛있는 간식, 과일을 한 아름 안고 방문해주신 성심차대 분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 NEPAL



카트만두 한인교회 여성도회

카트만두의 하나뿐인 한인교회에서 여성도회 회원 분들이 방문 해주셨습니다. 여성도회 분들은 봉사 후,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도 전해 주시고, 다음 봉사도 약속해주셨습니다. 여성도회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며 다음 봉사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뵈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CAMBODIA



충현복지관(3/13,21)

지적장애를 돕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충현복지관은 50여 명의 직원들이 두 차례에 나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 봉사활동을 펼쳐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이미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이 손에 익어서인지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을 어려움 없이 해낸 충현 복지관 분들.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찾아오면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웃으며 놀아주는 모습에 감명 받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충현복지관 직원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돌섬 선교회(5/22)

나누고 돌보고 섬기자. 나돌섬 선교회는 매년 한 두 차례 이상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하고 봉사하는 선교팀입니다. 파주 사랑의교회 이천식 목사님과 함께 뜻을 모은 일곱 분이 이번에도 시엠립 다일공동체를 찾아 주시고 미리 준비한 구호품을 나누시고 아이들을 위해 따스한 밥 한 끼를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선교회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필리핀 PHILLIPHINES



MJ 글로벌 아카데미

30여명의 학생들이 까만씨를 찾아주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마을 구석 구석 쓰레기를 줍고,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빵을 만들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는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은 후원금까지 직접 모아 와 전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찾아와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난 MJ글로벌 아카데미 팀. 학업으로 해외에 나와 있지만 어디에 있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MJ글로벌 아카데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우, 박지혜 부부

출산을 앞두고 둘만의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세부를 찾은 남은우, 박지혜 부부. 의미 있는 여행을 위해 길지 않은 일정을 쪼개어 까만씨를 방문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 부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온 티셔츠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축통이(태명)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달길 기도합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국내신규후원회원 2017.04-2017.05</p>	<p>(주)우원, 강병두, 강봉규, 강인석, 강지원, 강철웅, 강혜진, 고문석, 고병식, 곽정연, 곽채운, 구도현, 구정희, 권경이, 권대훈, 권민서, 권영길, 권예빛, 권예슬, 권원혁, 권혁상, 길지윤, 김건우, 김경훈, 김기룡, 김기섭, 김남연, 김다훈, 김명지, 김미경, 김미숙, 김미애, 김미옥, 김민아, 김백솔, 김복순, 김수연, 김시현, 김영빈, 김영옥, 김영운, 김영지, 김영철, 김옥희, 김용우, 김원서, 김유진, 김윤경, 김윤재, 김은석, 김은정, 김은주, 김익송, 김인숙, 김재일, 김정민, 김정현, 김종대, 김지훈, 김진숙, 김진우, 김창모, 김태균, 김태훈, 김현경, 김현민, 김현송, 김현숙, 김형기, 김혜영, 김홍임, 김희찬, 나해수, 남상부, 노경주, 노민, 노용환, 다사랑경협삼, 데오필컴패니, 류인하, 마혜린, 문선희, 민남숙, 박규로, 박단희, 박두수, 박세힘, 박서준, 박성호, 박세정, 박신웅, 박연숙, 박예슬, 박원순, 박은경, 박재관, 박정민(권선희), 박지예, 박현남, 박현진, 박희영, 방영일, 방진호, 배경득, 배연진, 백경미, 백당한의원, 백현, 변승중, 변희만, 서다운, 서복선, 서예린, 서해국, 서현주, 선동걸, 성백훈, 손기영, 손승희, 손연정, 송명숙, 송복철, 송정순, 송호동, 승리교회유년/유아부, 신동수, 신영재/임현근, 신용원, 신원균, 신하영/신하성/신하니, 심상순과남편, 심연정, 안대성, 안선옥, 안종숙, 안효진, 양미란, 양서윤, 양하영, 여상일, 염순희, 오동수, 오성연, 오정화, 오지아, 오진숙, 우리들교회, 원동규, 원소영, 위세미, 유미숙, 유미숙, 유민상, 유성훈, 유승연, 유영남, 유영미, 유재영, 육아라, 윤귀순, 윤기주(명지유치원), 윤성혜, 윤순영, 윤여옥, 의정부비전교회, 이개원, 이경록, 이기현, 이문자, 이문준, 이미영, 이보견, 이복순, 이봉상, 이상만, 이서하, 이신하, 이순희, 이승아, 이연구, 이영숙, 이영우, 이영택, 이우리, 이은영, 이자옥, 이재령, 이재순, 이정숙, 이정왜, 이정현, 이정화, 이재광, 이종부, 이종삼, 이종찬, 이준수, 이지현, 이진수, 이진실, 이한순, 이한하, 이현희, 이혜경, 이후민, 임승옥, 임혜경, 장동성, 장석현, 장순임, 장윤선, 장현숙, 정미경, 정순란, 정순희, 정연호, 정원영, 정지윤, 정창모, 정현영, 정현석, 정혜린, 정혜연, 정혜윤, 조성배, 조영화, 조윤선, 조인숙, 조재윤, 지순자, 진보라, 차명자, 천창영, 최경채, 최다현, 최덕배, 최란, 최민성, 최새롬, 최설윤, 최승환, 최영준, 최은진, 최주은, 최하나/김희서, 커피가버먼트, 틀니디자인어소시에이트, 하지민, 하지우, 하태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 한미자, 한윤재, 한은화, 한정용, 허남용, 허아련, 홍은경, 홍정애, 황무남, 후쿠다 사치코</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2017.4.16-2017.6.15</p>	<p>후원금 / 이마트이문점, 조용근회장님(석성), 최정호님 후원물품 / 서노협(익자)</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네팔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네팔선교회, 모금함, 박종명, 산어행사, 와 우리교회, 이정희장로</p> <p>후원물품 / 박종명</p>
<p>필리핀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MJ 글로벌 아카데미, 까비떼 1페소의 기적 10차/11차, 염옥숙</p> <p>후원물품 / 남은우(티셔츠 40벌), 이태형(축구화 10족, 축구공 3개)</p>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KCOC, 거창고등학교, 김건중선교사님, 라이프스타일즈코리아 안상현, 무명, 무명, 박종근목사님, 신일고등학교, 신한은행, 유니온국제학교, 이종호.이성자(미주 다일공동체), 이형식.이순열(캐나다 다일공동체), 카도, 흥광교회주해소</p> <p>후원물품 / 강병두(학용품), 거창고등학교(식료품, 학용품, 생필품), 굴현교회(의류), 무명(의류), 무명(의약품), 박옥분(의약품), 박종근목사님(오토바이), 사랑의교회(의류, 생필품, 학용품, 잡화), 신한크메르뱅크(쌀 100kg, 간식, 학용품, 수건300장), 주해소(식료품, 의류, 학용품)</p>
<p>베트남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DAEWOO INTERNATION/A PLUS, Chairssa/이진아님/이한나님, LOTTERIA, NAHAL, THANH CONG, 권민혁님, 기업은행, 김형길 원장님, 대장금, 모금함, 박정순님,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안상현집사님, 오희승 집사님, 참조은광성교회, 풍안호텔, 호치민여성봉사단, 호치민중앙교회</p> <p>후원물품 / 김미경님(옷, 인형2개, 운동화, 샌들, 양말, 가방), 사이공드림교회(라면), THANH CONG(쌀, 바나나), 안혜선님(과자)</p>
<p>중국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김도현, 김래현, 김성재(Obey & Praise), 김송자, 권윤경, 다일졸업생 모임, 무지개 애심협회, 연길 홀트, 최연령, 한연, 훈춘 한인교회</p> <p>후원물품 / 김나엽(종즈6상자, 우유, 계란), 권윤경(정기 아동간식 지원), 영광제빵(빵 6상자), 인터넷 애심협회(야외활동지원, 아동간식), 진수성찬(도시락22세트, 케익), 춘량동사무소(야외활동지원, 아동간식, 만두), 훈춘 차배(쌀500근, 우유, 과일), 훈춘 청소년외국어학교(토종계란)</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박시현, 서울가든, 이해명</p>
<p>우간다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고준식(토론토중앙장로교회 장로), 김미경(토론토중앙장로교회), 김형덕(토론토중앙장로교회), 목대권(토론토중앙장로교회), 송윤섭(토론토우리장로교회 목사), 신유영(캐나다동신교회), 유상철(토론토중앙장로교회)</p>
<p>미주 다일공동체 2017.4.16-2017.6.15</p>	<p>후원금 / Aaron Kim, Aaron Ong, Ashley Kim, Barry Huang, Beatrice Shim, Brian Cho, Bum Sung Han, Charles Han, Cho Family, Christian Tiao, Dan Lee, Danyoung Kim Bomi Kim, Dennis Han, Eileen Yu, Eonil Shin, Esther Kwon, Gloria Lee, Hyeyong Park, Hyeyoon Han, Jack Shin, Jacqueline Kim, Jae Yoon Myung, Jane Han, Jeanne Lee, Jessica Sudarta, Ji Young Lee, Joice Im, Joseph Hourihan, Jong Dae Park, Jong Hwang, Jonghae Lee, Joon & Gina Ryu, Jungmin Lee, Justin Haber, Kimberly Wei, Michael Kim, Minjung Song, Nancii Kim, Nick Kim, Sean & Eileen Kim, Senyoung Kim, Seongho Park, Sol Lee, Soowan Jeong, Stephen Do, Sung-Bin Kim, Tim Cho, Ye Ji Park, 구흥자, 권윤경, 기인혜, 기형탁, 김민호, 김수예, 김수지, 김정용, 김종우, 김형덕, 김혜수, 다녕, 박규태, 박소현, 박인섭&이숙, 변창민, 세녕,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송윤섭, 신은택, 신재욱, 양다미, 양창진, 유니아, 유수애, 유신애, 윤경용, 윤재권, 윤현자, 이경재, 아국화, 이승연, 이애자, 이영호, 이용술, 이종성, 이해리, 임기호, 임주영, 장영남, 정시화, 조신형, 조영진&장기옥, 천수희, 한대혁, 한성아, 한은희, 한정규, 함진</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32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정기후원	1:1 해외아동결연 (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기업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긴급한 사역에 우선으로 사용됩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예금주 :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ON M6N 4x7, CANADA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_____ 원 |
| <input type="checkbox"/>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

일시후원

- | | |
|---|---|
|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

후원회원 정보

- | | | |
|-----|--------------------------------------|------------------------------------|
| 이름 | 주민등록 앞번호 | (남/여) |
| 연락처 | <input type="checkbox"/> SMS수신동의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Email수신동의 |
| 주소 | | <input type="checkbox"/> 우편물수신동의 |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 | | |
|--------------|---|
| 출금은행 | 예금주 |
| 계좌번호 | 이체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 (남/여) |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fax 02-2243-8005  다일공동체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대표번호 02-2212-8004로 전화주시면 전 분원, 전 부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83기 7월 04일-08일

184기 7월 18일-22일

185기 8월 01일-05일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 (4박 5일)

51기 8월 08일-12일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5박 6일)

22기 7월 11일-16일

23기 8월 15일-20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국내문의 : 031 585 2004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 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1부(7시), 2부(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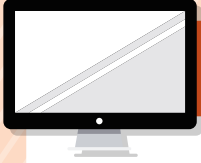
Tel. 031 585 2004 (통화가능시간 오전9시-오후6시)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법파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홈페이지로 신청



<http://www.dail.org>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방문 → 후원하기 클릭 → 원하는 후원방법 클릭
일반후원, 프로젝트후원, 특별후원, 기업/단체후원, 다른방법

전화로 신청



02-2212-8004

다일공동체에 전화 → 통화 연결음 후 1번 누르기 → 후원관리실 연결

우편으로 신청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소식지 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 작성 → 다일공동체 주소 기입 후 우편으로 전달

카카오톡으로 신청

다일공동체 Yellow아이디



ID/플러스친구 검색 → 다일공동체 찾기 → 친구등록 완료 →

1:1채팅하기 클릭 → 원하는 후원방법 클릭

정기후원하기, 일시후원하기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방문(<https://www.facebook.com/dailcommunity>) 후
'좋아요', '팔로잉' 클릭 부탁드립니다. 한 번 클릭 시 1000원의 기부 효과가 있습니다.